

재외동포의

창

October 2017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 민속놀이 ‘강강술래’

한가위 때 즐기는 옛날 젊은 여성들의 해방구



음력 8월 한가위 때 여성들이 모여 하는 민속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

대한민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주로 음력 8월 한가위에 행해진다.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맞잡아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돌며, 한 사람이 ‘강강술래’의 앞부분을 선창(先唱)하면 뒷소리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어받아 노래를 부른다.

놀이는 늦은강강술래로 시작하여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로 변화하면서 발놀림이 빨라지고 흥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 중 가장 아름답고 여성놀이다운 멋이 깃들여 있는 것이 늦은 강강술래이고, 중강강술래는 해남과 진도지방에서만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강술래가 너무 흥겹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달이 뜨는 초저녁부터 달이 질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춤추기를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민속놀이는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다가 기와 밟기, 덕석 물이, 쥐잡기놀이, 청어 연기 등 농촌이나 어촌 생활을 장난스럽게 묘사한 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 춤의 이름

은 노래의 후렴구에서 따왔지만, 그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옛날에 한가위를 제외하고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놀이를 통해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느끼며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공연 예술로서 이 풍속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강강술래는 시골의 일상생활인 쌀농사 문화에서 유래하는 중요한 전래 풍습이다. 단순한 율동과 동작 때문에 배우기 쉽고, 여성들이 이웃 여성들과 함께 춤추는 가운데 협동심·평등·우정의 교류를 함께 했다. 근래에 이르러 예술 치료 요법 분야에서 강강술래의 응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강술래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이며,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참\]](#)



CONTENTS

2017. 10



- 02 한국의 얼**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 민속놀이 '강강술래'
한가위 때 즐기는 옛날 젊은 여성들의 해방구
- 04 특집**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재단, 동북아 평화 정착·평창올림픽 홍보 방안 논의
73개국 한인회장 400여 명 참가, 동포 유공자 104명 포상
- 08 화제 1** 고려인·에네켄 후손들, 모국서 '한식·뷰티케어' 직업연수
인천재능대·오산대서 3개월 교육, "창업해 하루 전파" 다짐
- 10 화제 2** 文대통령 "유엔, 북한 핵문제에 더 적극적 역할 필요"...
'다자주의 대화' 촉구
첫 유엔연설... "北 도발·제재 악순환 멈출 방안 강구하는 게 유엔 역할"
- 12 글로벌 코리아** 재외동포 사상 첫 4선 국회의원 당선, 뉴질랜드 한인 1.5세 멜리사 리
'시드니 디자인 어워드' 은상 받은 호주동포 김규범 씨
성형외과 의사 출신 호주 동포 김상희 씨, 시의원 당선
- 14 동포소식** 제18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122개국 3천630명 위촉 외
- 17 동포 캘린더** 국외 입양인·가족 모국방문 캠프... 11개국 60명 참여 외
- 18 유공동포**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한국계로는 미국 최고 공직 오른 강영우
영문판 자서전 7개 국어로 출간... 드라마, 영화로도 제작
- 19 주목! 차세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재외동포 4세 배우 강하나
위안부 아픔 다룬 영화 잇따라 출연...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
- 20 지구촌 통신원** 美, 불법체류 청년 80만 명 추방 결정... 한인 1만 명도 쫓겨날 위기
시행 6개월 유예... 민주당 반발 속 공화당 일부 가세로 최종결론 '안갯속'
- 21 한민족 공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후 中 단둥 해 주차장 텅 비어
"대북제재는 북한의 자업자득", "대북 무역상을 일거리 없애져"
- 22 OKF 뉴스** 경남 창원서 세계한상대회... 50개국 3천500명 참가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한민족의 정서에 꼭 맞는 친숙한 음식 '비빔밥'
대표주자는 양반고을 '전주비빔밥'... 조선의 3대 음식으로 꼽혀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76개국에서 온 443명의 한인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동포사회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동북아평화 정착을 앞당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돕는 방안을 모색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o@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재단, 동북아 평화 정착 · 평창올림픽 홍보 방안 논의
76개국 한인회장 400여 명 참가, 동포 유공자 104명 포상

전 세계 한인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27일 오전 10시에 막을 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6여 개국에서 찾아온 한인회장 443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8회를 맞은 올해 대회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동포사회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동북아평화 정착을 앞당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돕는 방안을 모색했다.

개막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려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4명을 포상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평창에서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194개국 740만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김석기 자유한국



2



3

1.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2. 개막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한인회장들.
3.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 세계한인회 자원위원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배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당 재외국민위원장, 김덕룡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현 외교부 제2차관, 김봉규 재외동포재단 초대 이사장, 심수화 연합뉴스 상무 등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상자로는 1956년 재일한국장학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단체를 이끌며 차세대 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서용달 모모야가마쿠인대 명예교수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이형식 전 덴마크한인회장(모란장), 장재중 소록유니재단이사장(석류장), 김원철 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한인회 이사·차승순 전 미국 미시간한인회 회장(대통령표창) 등이 대표 수상했다.

“

76개국에서 온 443명의 한인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동포사회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동북아평화 정착을 앞당기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돕는 방안을 모색했다.

”

오공태 재일민단 단장,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이형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 대륙·지역별 한인회장 13명은 평창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남창규 대회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거주국에서 결속을 통해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고 모국과의 원활한 소통에 앞장서 왔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한 마음으로 성원하는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재외동포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포지원은 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재외동포 지원을 10번째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를 통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7일 오후 정부 정책과 사업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은 동포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병역, 국민연금,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선거 등을 소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국으로 역(逆) 이주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국적 회복 문의가 최근 늘고 있다”며 “병역기피 목적의 한국 국적 포기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저해될 소지가 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도 진행됐다. 9월 4일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자는 5만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4만8천여 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영근 독일 비스바덴 한인회장으로부터 평화를 기원하며 독일 어린이들이 손자장을 찍어 만든 한반도 지도를 선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금융거래·부동산매매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소(www.klac.or.kr/cyber/)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등을 알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광복 조지아한인회장은 “비즈니스·교육·역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재외동포들의 고국 체류가 있는데 정책과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지만 한계가 있다. 해외 출장 설명회를 열거나 상설화된 통합 상담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북핵 위기 극복위해 단결해 모국 지지”

한인회장들은 28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반도의 긴장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중국, 일본, 미국,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10개 권역별로 나눠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들은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로 시작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포사회가 단결해 모국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포들이 참여하는 ‘통일촉진위원회’ 발족 등을 제안했다.

이상철 중국 소주한국인회 회장은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민간외교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영희 상해한국인회 회장은 “80만 재중국한인사회가 이제는 중국을 사업을 위한 체류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고 더 붙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북한사회를 잘 아는 한·중·일 3국의 조선족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중령 몽골한인회장은 “3천여 명의 한인들은 몽골에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라며 “한때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가까웠던 몽골이 최근에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친한국 정책을 펼친다”고 소개했다.

지난 9월 16일에 일본 각지에서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던 오토타 재일민단 단장은 “200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사회가 탈북자를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세원 캐나다 밴쿠버한인회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현지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며 “한인회에서 올림픽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세미나도 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은 한인회장에게 정부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한인회장들은 10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정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장은 “한인회가 현지 지역축제에 참여해 올림픽을 소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오는 10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리는 남극축제에 올림픽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성공 지원’ 결의하며 폐막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고국과의 유대 강화를 모색한 이번 대회는 9월 29일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폐회식 및 전체회의에서는 지역별 한인회 현안 발표, 결의문 채택, 내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추인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세계한인회장단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개최 지원, 북한 핵개발 중단 및 남북 대화 참여 촉구, 재외동포청·재외동포센터 건립 촉구, 재외국민보호법 신속 제정, 재외동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적법·소득세법 개정 요청 등 10개 조항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이 기부한 장학금 2천200만 원은 한상들이 모국 차세대 육성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동포사회 현주소를 짚어보면서 동북아평화 정



대회기간 한인회장들은 모금한 2천200만 원을 글로벌한상드림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착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했다.

오공태 대회 공동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와의 대화 및 한인회 현안 토론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회를 통해 모인 한인회장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는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이동우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장\]](#)

INTERVIEW

오공태 · 남창규 공동의장 “한반도 평화와 평창 성공에 한인회 앞장”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인 오공태 제일민단 단장과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 대해 “북핵 문제로 경색된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또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발전과 동포 차세대의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소개했다. 오 단장은 “740만 재외동포와 모국은 상생하는 동반자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인 오공태 제일민단 단장(사진 좌측)과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관계”라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껏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도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모범적인 단체로 자리 잡은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국에 유리한 여론 조성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1세대와 달리 현지에서 성장해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한 차세대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육성 사례를 공유한 것도 큰 성과라고 소개했다. [\[장\]](#)

고려인·에네켄 후손들, 모국서 ‘한식·뷰티케어’ 직업연수

인천재능대·오산대서 3개월 교육, “창업해 한류 전파” 다짐



재외동포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 차세대 한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려인과 에네켄(애니깽) 후손 54명을 초청해 3개월간 직업연수를 실시했다.

재단은 한인 후손들이 거주국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주류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초청 직업연수를 2015년부터 실시했고 2016년 쿠바 한인후손을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멕시코 후손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다.

고려인 청년들 “창업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식당이나 미용실을 차려서 음식과 미용에서 한류를 전파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7월 3일부터 인천재능대에서 3개월간 한식조리·뷰티 메이크업·헤어미용 등의 직업연수를 받아 온 고려인 청년들은 인터뷰에서 “귀국하면 모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취업할 계획”이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직업연수에는 43명이 참가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한식조리를 배운 고려인 3세 프하이 빅토르(29·남) 씨는 “10년간 여러 식당에 근무하며 이탈리아·프랑스·일본 요리 등을 다양하게 배웠지만 고려인으로서는 한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며 “귀국하면 고향인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시에 첫 한식당을 열겠다”고 말했다.

빅토르 씨는 “K팝 등 한류로 인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기회”라며 “한식은 웰빙식이 많아 제대로 소개하면 현지인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알렉세이 안(21·남) 씨는 “지난해 이 연수에 참가했던 지인이 창업한 한식당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러시아에도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 있어서 만둣국을 인기메뉴로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기술대학에서 조리와 제빵을 전공했다.

이들은 매일 오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5시간씩 이론을 병행한 실습 위주 교육에 참여했다. 주말에는 한국 문화 탐방 활동을 벌였다.



3

1. 인천재능대에서 직업연수에 참여한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차세대들이 한식조리 실습을 하고 있다.
2. 인천재능대에서 헤어·미용 기술을 익히고 있는 고려인 차세대들.
3.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차세대 44명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인천재능대에서 직업연수를 받았다.
4. 경기도 오산대에서 헤어 미용·네일아트를 배운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11명이 한복을 입고 서울 체험을 하고 있다.



4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 “K-뷰티 전파”

“멕시코·쿠바에서는 미용사가 여성 인기 직업입니다. 모국에서 배운 선진기술을 활용해 ‘K-뷰티’를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7월 5일부터 경기도 오산대에서 3개월 동안 헤어 미용·네일아트 등의 직업교육을 받은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선망하던 미용기술을 맘껏 배워 감사하다”며 “돌아가면 우선 소규모라도 미용실을 차릴 것”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멕시코, 쿠바의 한인 4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직업연수에는 여성 1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9월 26일에는 동포재단이 제공한 한복을 입고 서울 여의도의 KBS 아트홀을 방문했다.

후손들은 “생전 처음 한복을 입었는데도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며 “한국인이 된 느낌이라 아주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했다.

모국을 처음 찾은 멕시코의 율리아나 파트리시아 로사도 킨(29) 씨는 “인터넷과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 등을 통해서만 접했던 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라서 뿌듯하다”며 “멕시코에서는 미용실 운영이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보다 수입이 낮다”고 소개했다.

킨 씨와 함께 온 다프네 미도리 송 라구나(29) 씨는 “현장 체험으로 방문한 한국 미용실마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용 솜씨 못지않게 친절한 배려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배운 게 제일 큰 수확”이라고 기뻐했다.

쿠바에서 온 리셋 비야프루엘라 마시아스(26) 씨는 “3개월 간 거리, 공원, 식당 등 어디서든 서툰 한국말에도 찡그리는 얼굴 없이 대해주어 모국에 온 걸 실감했다. 김치를 먹으며 한국계로 살아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 안시드 로드리게스 김(23) 씨도 “쿠바에도 최근 K-팝·K-드라마가 퍼지고 있어서 한국식 헤어 미용도 준비만 잘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연수기간에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배웠다. 참가자들은 귀국해서도 계속 공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재능대 관계자는 “보통 8~10개월 걸리는 실기 과정을 3개월로 압축해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발레 선생을 하다가 뷰티·메이크업 과정에 지원한 포즈낙 나체즈다(23·여, 벨라루스) 씨는 “웨딩·연예인·패션쇼·파티 분야 화장과 피부 미용 등 앞선 한국의 뷰티 기술을 배워 행복하다”며 “돌아가면 패션쇼 메이크업 분야에 도전할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알렉산드라 양(24·여, 우즈베키스탄) 씨는 “헤어미용 5년 경력이 있어 쉬울 줄 알았는데 최신 유행 기법과 첨단 장비 사용 등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훌쩍 지났다”며 “한국에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게 알려져 졸업도 하기 전에 타슈켄트의 유명헤어샵 채용이 결정됐다”고 기뻐했다. 처음 모국을 찾았는데도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해 너무 좋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14년간 남성 헤어 컷 전문미용사로 활동했다는 다찌아나 박(33·여, 키르기스스탄) 씨는 “여성 헤어미용 쪽도 자신이 생겼던 것이 최대 수확”이라며 “이제 미용실을 창업할 자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유엔, 북한 핵문제에 더 적극적 역할 필요” ‘다자주의 대화’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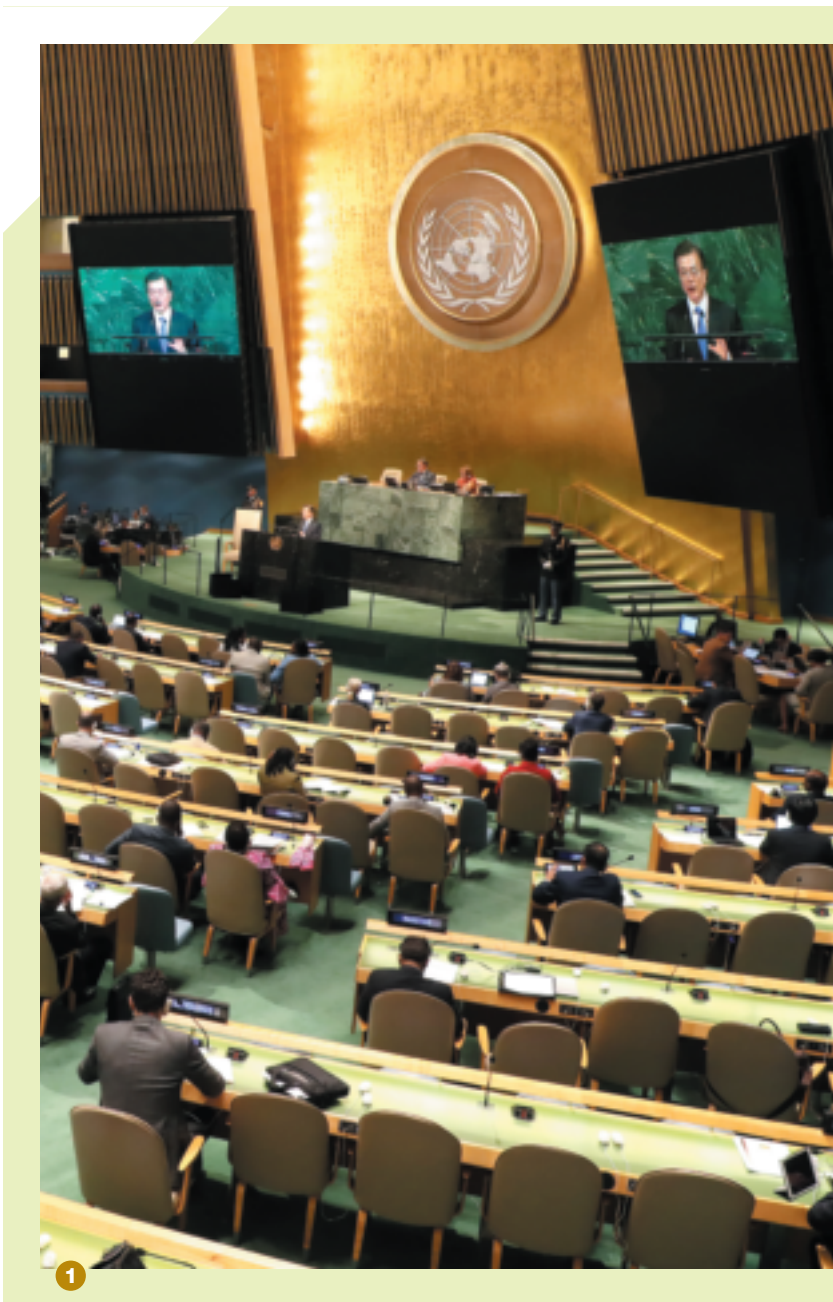
첫 유엔연설… “北 도발·제재 악순환 멈출 방안 강구하는 게 유엔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미국 동부시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과 관련, “한반도에서 유엔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국제사회의 최상위 정치 협의체인 유엔이 다자주의적 대화를 통한 평화실현이라는 유엔정신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엔 헌장이 말하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해야 한다”면서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한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



1



2

해 거듭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응하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 하고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피란민의 아들인 자신을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 자인 이산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특히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이 잇따라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를 다지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든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1~2.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이다.

한·미 정상 “美, 한국에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지원” 북한 비핵화,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공동 목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1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펠리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과 관련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펠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위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질랜드 한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할 것”

재외동포 사상 첫 4선 국회의원 당선, 뉴질랜드 한인 1.5세 **멜리사 리**



9월 23일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한인 1.5세 멜리사 리(한국명 이지연·51) 의원이 국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언론계 출신인 리 의원은 지난 2008년 정계에 진출한 이후 내리 4선의 위업을 달성했다. 재외동포로 4선 국회의원에 오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의 기록을 갱다.

멜리사 리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준섭 씨는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리 의원은 31번을 배정받았고, 국민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또 집권하면 무난하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순번이었다”고 전했다.

리 의원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4선의 꿈을 이루어 기쁘다며 많은 한인이 헌신적인 도움을 준 덕

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 관계도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인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당이 제시한 정책 중에 초등학교에서 제2언어를 교육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며 앞으로 한인 교사들이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1살 때 부모님을 따라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뒤 호주에 유학했으며 1988년 뉴질랜드에 이민했다. 신문 기자, 뉴스진행자 등으로 20년간 활약했으며 2008년 국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이듬해 헬렌 클라크 전 총리의 유엔 진출로 치러진 마운트 앨버트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래 3선의 관록을 쌓았다.

“한반도 통일 후 건축가로서 기여하고 싶다”

‘시드니 디자인 어워드’ 은상 받은 호주동포 **김규범** 씨

호주동포 건축가 김규범(에릭 김·32) 모마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2017 시드니 디자인 어워드’에서 은상을 받았다. 세계적인 디자인 커뮤니티 ‘드라이브 엑스 디자인’은 김 대표가 출품한 ‘리드컴 워크’가 시드니 디자인 어워드에서 은상을 차지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드라이브 엑스 디자인’은 전 세계 7만5천 명의 회원과 5천 개 브랜드, 1천500개의 스튜디오가 디자인을 혁신하고 가속하며 수요를 높이기 위해 모인 커뮤니티다. 시드니를 비롯해 런던, 홍콩, 뉴욕 등지에서 매년 ‘디자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시드니 어워드는 2012년부터 건축 부문을 포함한 시각, 제품, 디

지털 등 디자인에 해당 연도 최고 작품을 선정하는 호주의 대표적인 디자인상이다.

건축 설계 제안 부문에서 은상을 받은 김 대표의 출품작 '리드컴 워크'는 시드니 리드컴 지역의 실제 개발프로젝트인 10층 104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설계한 것이다. 올해 건축 설계부문에는 30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건축 설계부문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은상에 오른 그는 8월 29일 시드니 시 벨로갤러리에서 일본 대표 건축회사인 '사나'와 공동 수상했다.

김 대표는 "건축주와 공동체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설계를 진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아파트 1층 공간의 3분의 1을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에 개방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한 뒤 "안정된 직장을 떠나 하고 싶은 건축을 위해 사무소를 낸 지 5년 만에 큰 상을 받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13살 때 부모를 따라 호주에 이민했고, 시드니대에서 건축학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공인 건축설계사인 그는 "기회가 되면 고국을 방문해 프로젝트를 꼭 진행해보고 싶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난 후 건축가로서 기여하고 싶다"고 희망을 전했다.



“라이드 시의 작은 기적” 한인들 환호

성형외과 의사 출신 호주 동포 **김상희** 씨, 시의원 당선

호주 동포 1.5세인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희(피터 김·44) 씨가 시드니 인근 한인 밀집지역인 라이드 시 시의원에 당선됐다.

9월 15일 현지 한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9월 9일 치러진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지방자치단체 선거 중 라이드 시의 시의원 선거에 노동당 2순위 후보로 도전했고 노동당은 라이드 시의 웨스트워드에서 39.63%(7천368표)를 획득했다. 이 지지율에 따라 1순위 제롬 락살 시의원과 함께 김 후보도 동반 당선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라이드 시에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시의원이 됐다.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작은 기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신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이민했다가 1986년 호주에 재이주했다. 시드니 의대를 졸업하고 흉부외과 레지던트

를 하다가 그만두고 시드니 외곽에 피부암 전문병원을 열었다.

피부암과 성형수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은 뒤 3년간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고 시드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채스우드에서 '심플리 뷰티풀'을 개업했다. 1년에 1천 회에 달하는 성형수술을 집도한 그는 수술하지 않고도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고, 관련 논문은 미용성형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에스세틱 플라스틱 서저리'에 실렸다.

이 기술 개발과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 호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등재됐다. **창**



제18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122개국 3천630명 위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제 18기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으로 122개국 3천630명을 위촉했다. 민주평통은 최근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 세계 122개국 43개 해외지역협의회에서 3천630명의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재외공관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했다. 자문위원의 숫자는 17기(117개국 43개 해외지역협의회 3천278명)보다 352명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이야기하며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9월 1일 출범한 제18기 해외 부의장은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단장, 박종범 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황원균 전 버지니아 주 한인회장,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장, 이숙진 호주 제마이홀딩스그룹 대표가 맡았다. 일본 지역과 유럽·중동·아프리카를 각각 맡은 오 단장과 박 전

회장은 17기에 이어 연임됐고, 미주 지역과 아시아·대양주를 각각 관할하는 황 전 회장과 이 대표는 16~17기 워싱턴협의회장과 호주협의회장으로 활동했다. 8대에 이어 9대 재중국한국인회를 이끄는 이 회장은 중국 지역을 대표한다.

5명의 지역회의별 부의장과 함께 43개 해외지역협의회 회장, 간사 등 130여 명은 10월 말부터 2박 3일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위커킬 호텔에서 열리는 '해외 간부 자문위원 워크숍'에 참가한다. 해외지역협의회는 지금까지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사업을 비롯해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외식 함양 사업,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알타이어 형제” 韓·아제르 수교 25주년… 아리랑으로 어울림

'알타이어 형제 나라' 아제르바이잔(아제르)에서 한국과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펼쳐졌다. 주(駐)아제르 한국대사관과 아제르·한국문화교류협회(SEBA)는 9월 17일 수도 바쿠에 있는 헤이다르 알리에프 팰리스에서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9월 17일 한국과 아제르의 수교 25주년을 축하하는 문화행사가 열렸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아제르 전통음악 '무감' 공연단과 한국민요 아리랑을 협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루한기즈 헤이데로바 SEBA 회장과 일티마스 마마도프 통신첨단기술부차관, 김창규 주아제르 한국대사 등 양국 각계 인사, 바쿠 시민과 현지 한인 총 1천800명이 자리를 메웠다. 양국 인사의 인사말에 이어 궁중 의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한복 패션쇼,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공연, 사랑가와 태평무 등 전통 가무, 타악 합주

등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가 무대에 올랐다. 특히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과 아제르 전통음악 '무감'의 협연은 독특한 어울림을 빚어내며 관객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중앙아시아 석유 부국인 아제르와 한국의 외교관계 역사는 25년으로 길지 않은 편이나, 두 나라 모두 알타이어를 공유해 문화교류 잠재력이 크다고 한국대사관은 설

명했다. 알타이어족은 중부 유라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에 뿌리를 둔 언어 계통으로, 한국어도 알타이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국대사관은 연말까지 태권도대회, 고고학 세미나, 아제르 실향민 위로행사, 한국 식품 홍보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

한인 많은 美 남가주, 지진 우려 확산… 총영사관서 대피훈련

9월 19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쪽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사망자 220명 이상이 집계된 가운데 미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인 로스앤젤레스(LA) 등 남캘리포니아에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20일 미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남캘리포니아는 멕시코와 같은 '불의 고리'에 속해 있다. 불의 고리란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한다. 미국 서부 해안과 멕시코, 남미 서부 해안, 뉴질랜드, 대만, 일본 동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남태평양 비누아투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있었고, 대만 동부 화롄(花蓮)에서 규모 5.7, 일본 동부 해상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각각 일어났다. LA에서



멕시코 강진 수색현장.

도 멕시코 강진 하루 전인 9월 18일 심야에 도심 인접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밤 11시 20분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 405번 프리웨이 세플레다 패스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지만, 웨스트할리우드와 LA 도심 한인타운, 남쪽 어바인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파장이 광범위했다.

LA의 한 교민은 “자다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깬다. 이웃과 친지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교민 거주지역에 지진 공포가 커지자 LA 총영사관은 이날 비상대응체계 점검회의와 대피훈련을 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실에서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과 직원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등 비상계획을 점검했다.

올해 '캐나다 한인상'에 김하나 씨 등 4명 선정

지난 2008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 관련 도서 분류의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 록스'로 바꾸려는 계획을 보류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김하나(41·사진) 씨가 '제35회 캐나다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9월 18일 한인상 이사회(이사장 신숙희)에 따르면,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아시아도서관장으로 재직하는 김 씨는 독도를 지키고, 토론토대 동아시아도서관에서 12년간 한국학 사서로 일하면서 캐나다 내 최대 한국학 장서가 보관된 곳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그와 함께 최유경(앤 최) 작가도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김소일 터치캐시ATM POS 사장과 이창복 팬아시아 사장은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인 1.5세인 최 작가는 지난해 소설 '케



올해 캐나다 한인상 받는 김하나 씨.

이스 럭키 코인 버라이어티'(Kay's Lucky Coin Variety)로 제42회 토론토 북 어워드 최종후보에 올라 한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장은 2000년 터치캐시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직원 대부분을 한인으로 채용하고, 매년 여러 단체를 후원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펴고 있다. 1968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 사장은 1975년 유통회사인 팬아시아를 창업해 번 돈을 토론토한인회관 건립과 토론토대 한국어학과 설립 등에 쾌척했고, 한인사회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 캐나다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한인상의 올해 시상식은 11월 10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11년째 미국서 다양한 직지 홍보활동 펼치고 있는 구은희 씨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이 2019년 기네스 월드 레코드(기네스북)에는 등재될 것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 한글학교 교사 모임인 한국어교육재단을 이끄는 구은희(50) 이사장은 구텐베르크 성서가 최초의 기계를 사용해 인쇄한 책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는 ‘왜 78년이나 앞선 직지는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30여 종의 언어로 번역·발행되는 기네스북에 직지가 없다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난 6월 기네스북 조사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직지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보다



구은희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직지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는 단체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재단 산하 청소년봉사단체인 ‘카약’(KYAC)의 이름으로 신청하면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실었던 직지 설명을 그대로 첨부했다.

기네스북 조사위원회는 한 달 뒤 “검토를 해 신청한 내용이 사실이면 등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사위는 일반적으로 12~15주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 기간을 고려하면 10월 중순이면 등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이사장은 9월 20일 “그러나 기네스북 2018년 판이 지난달 말 이미 출간됐기에 직지가 등재된 책은 2019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는 조사위가 결정을 내려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日서 ‘일본산 한국배추김치’ 첫선... 고구려인 후손마을 현지재배

일본 도쿄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회장 오영석)는 현지에서 재배한 한국 배추로 담근 김치를 11월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9월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4년 전부터 여러 종류의 한국 배추 종자를 들여와 고구려 후손들이 사는 사이타마 현 히다카 시의 고려노인농업생산집단을 통해 시험 재배를 한 끝에 일본 토양에 적합한 고랭지 배추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됐다. 올해는 2만 포기를 수확해 한국에서 가져온 천일염·젓갈·마늘·고추 등으로 버무린 ‘고려왕김치’를 출시한다. 연합회는 앞으로 이 김치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사람을 위해서는 연합회 소속 마트를 통해 배추 직판



일본 도쿄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사이타마 현 히다카 시의 고려노인농업생산집단과 한국 배추 재배 계약을 맺어 11월부터 프리미엄브랜드로 ‘고려왕김치’를 출시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도 하기로 했다.

오영석 회장은 “일본에서는 한·중·일 3국 김치 중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에 이어 일본산이 많이 팔리고 정작 중국인 한국산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김치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체성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일 중요한 재료인 배추를 한국 종자로 현지인이 직접 재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배추가 수분이 제일 적어서 시간이 지나도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맛이 더 살아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한 대표적 발효식품이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외 입양인 · 가족 모국방문 캠프... 11개국 60명 참여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InKAS, 회장 정애리)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1개국의 한인 입양인과 가족을 초청하는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 캠프'를 개최했다. 입양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40명의 입양인과 배우자 · 자녀 · 양부모 등 20명이 참가해 서울의 문화유적 탐방을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 익산 한옥마을, 여수 오동도, 순천 자연생태공원, 남해 독일인 마을 등을 돌아봤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준공... 수교 25년 만에 '셋방살이' 청산

주중 한국대사관은 9월 14일 김장수 대사와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 위엔웨이민(袁衛民) 베이징외교인원복무국 국장 및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등 양국 정부인사, 재중국 동포, 여행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영사부 준공식을 개최했다. 영사부는 1992년 한중 수교 후 귀마오빌딩, 1995년 1월 산리툰 청사로 이전했고 2013년 4월 이후에는 랑마차오에 위치한 단독건물을 임차해 사용해오다 2015년 2월 대사관 부지 내 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0월 말 서울서 열려... '일자리창출 기획의 장'

차세대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인 제22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올해 대회에는 73개국 148개 지회 소속 회원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정부인사 등 최대 규모인 1천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 프로그램은 '차세대 창업 · 성장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 9월 29일 개막... 12개국 180여 명 참가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대표총재 김소희 · WKWA)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과 강원도 평창에서 '2017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 여성가족부,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한민족 여성의 힘을 결집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12개국 180여 명의 한인 여성회장단 임원,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참가했다.



중국 하얼빈서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13회 흥타민전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축제'가 9월 23일부터 이틀간 헤이룽장 성 하얼빈시에서 열렸다. 유니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후원하고 흑룡강조선어방송국과 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중국 전역에서 참가한 어린이가 글짓기 · 이야기 · 노래 · 피아노 등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예선에는 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60명이 결선 무대에 올랐다.



싱가포르 한국상의, 장애인 후원단체에 3만5천 달러 기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회장 봉세종 · 사진 맨 왼쪽)는 현지 장애인 후원단체 SPD(회장 차아 용웅)에 3만5천 달러를 전달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봉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3만여 명의 한인과 많은 한국 기업을 대표해 우리는 매년 자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현지인에게는 감동을 주는 격조 높은 자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 한국계로는 미국 최고 공직 오른 강영우

재미동포 강영우(1944~2012) 박사는 한국계로는 미국 최고 공직자인 백악관 차관보급 직위까지 올랐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헌신함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인물로 더 유명하다. 고인은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공에 눈에 맞은 후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다.

시각장애인이 되기 2년 전 부친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모친마저 아들이 영구히 시력을 잃게 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강 박사가 시각장애인이 된 지 1년 만에 뇌내출혈로 타계했다. 게다가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0대 가장이 됐다. 불행과 고통이 잇따랐지만, 신앙과 굳은 의지로 극복해냈다. 연세대 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제 로터리재단 장학생으로 뽑혀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유학, 교육학으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다.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올랐다. 백악관 정책차관보로 6년 동안 일하면서 미국의 5천400만 장애인을 대변하는 직무를 수행했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 자립, 권리 증진에 기여했다. 또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일했고, 소아마비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 유엔 창설 등 업적을 남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루스벨트 재단 고문을 지냈다.



시각장애의 시련을 극복하고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고(故) 강영우 박사와 아내 석은옥 여사.

강 박사의 영문판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7개 국어로 번역 출간됐고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부인 석은옥 여사도 대한적십자사(한적) 청년봉사회 부의장 등 적십자 봉사원 출신이며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로 28년간 일하는 등 남편 못지않은 봉사활동으로 선행을 실천해왔다.

강 박사 부부는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장남 진석(풀 강) 씨는 워싱턴포스트지에 의해 '슈퍼 닥터'로 선정된 유명한 안과 전문의이며, 차남 진영(크리스토퍼 강) 씨는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을 지냈다. 강 박사 부부는 평소 "아주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11세까지는 칭찬을 많이 해주어 자긍심을 길러주고, 15세까지는 양서를 많이 읽혀야 한다. 대학을 보내기 전에는 1주일간 여행을 보내 돈과 시간 관리 하는 방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기르도록 한다" 등을 효과적인 자녀 교육법으로 조언해 왔다.

강 박사는 2011년 체장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만, 나눔으로 세상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다. 두 아들과 함께 국제로터리재단 평화센터의 평화

장학금으로 25만 달러를 기부했다.

정부는 강 박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 2012년 제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한적도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권익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강 박사 부부에게 '적십자 인도장'을 수여했다. **▶**

영문판 자서전 7개 국어로 출간...
드라마, 영화로도 제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 싶어”... 재일동포 4세 배우 강하나

위안부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과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주인공 정민 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강하나(17)는 오사카에 사는 재일동포 4세대. 극단을 운영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네살 무렵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해 작년 ‘귀향’을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강하나의 어머니 김민수 씨 역시 이 영화에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역으로 출연한다.

강 하나는 “‘귀향’의 시나리오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며 “영화는 처음인 데다 쉬운 역할이 아니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시나리오를 읽은 뒤에야 깊이 생각하게 됐죠.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읽고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강 하나는 영화에서 경남 거창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위안소로 끌려간 열네 살 소녀 정민을 연기한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였다. 일본어 대사는 능숙하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던 그가 경상도 사투리를 소화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피나는 연습과 노력 덕분에 영화 속에서 그는 재일동포 4세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정민이 위안소에서 겪게 되는 여러




재일동포 4세 배우 강하나가 9월 5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에서 열린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VIP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죽은 정민이가 영혼으로 되살아나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을 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부디 타향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혼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귀향’ 촬영을 마치고 작년 2월 작품이 개봉된 뒤에도 마음고생이 이어졌다고 한다. 일본 현지 상영회를 통해 영화가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지자 인터넷에 극우 세력의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 저의 이름, 학교, 주소까지 공개됐고, 비난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경찰에 보호를 문의하고 변호사를 찾기도 했죠. 작품 개봉 당시 무대 인사나 인터뷰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에요.” 작년에 공식 행사에 나서지 않았던 그는 후속작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개봉을 앞두고 조정래 감독과 함께 무대 인사에 나서면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새 영화 홍보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강 하나는 10월 14일 부산에서 연극무대에 오른다.

어머니 김민수 씨의 극단 ‘달오름’이 선보이는 작품 ‘4·24의 바람’을 통해서다. 1948년 조선인학교 폐쇄령에 맞서 일본 조선인학교를 지켜낸 재일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다. 강 하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연극무대뿐 아니라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위안부 아픔 다룬 영화
잇따라 출연...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어”
”

美, 불법체류 청년 80만 명 추방 결정... 한인 1만 명도 쫓겨날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현행 '다카' (DACA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기로 했다. 다만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과 충격을 덜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추방대상 청년(일명 드리머 · Dreamer)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으로 인해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약 80만 명의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미 한인 청년 7천~1만 명도 추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다카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폐지와 유지로 당론이 갈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이 유지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다 추방 당사자인 드리머와 시민단체들은 물론 애플, 구글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드리머에게는 죄가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순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월 5일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백악관 앞에서 다카 지지자들이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드림법안 시행하라'는 한글 현수막도 보인다.

“

**시행 6개월 유예...
민주당 반발 속 공화당 일부 가세로
최종결론 '안갯속'**

”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꿈을 짓밟지 말라”...
재미동포사회, 다카 폐지에
강력 반발**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한 이민자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재미동포들도 "꿈을 짓밟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와 한인 권익옹호 및 정치력신장 단체인 민권센터(회장 문유성), 뉴욕 가정상담소(소장 김봄시내), 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 김광석) 등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은 9월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 등 80만여 아메리칸 드리머의 꿈을 짓밟는 결정을 했다"고 반발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또 앞으로 연방의원들에 서한 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한 '드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LA한인회(회장 로라 진)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회장 윤대중), 한미연합회(KAC · 사무국장 방준영) 등 LA지역 한인 단체들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드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전국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와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압력 행사를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창]**

강영두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후 中 단둥 해관 주차장 텅 비어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주민들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의한 데 대해 “이번 제재는 조선(북한)의 자업자득”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유엔 안보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동결 및 섬유제품 수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9월 12일 연합뉴스 기자가 방문한 단둥의 북·중 접경 분위기는 쌀렁했다.

이날 오후 북한 무역차량 통관을 담당하는 단둥 해관(세관) 주차장은 텅 비었고 시민들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둥의 공장에서 근무연한을 마치거나 비자 연장이 여의치 않은 탓에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관 마당에 모여든 북한 근로자 수십 명이 목격되기도 했다. 북한 신의주에서 수출화물을 싣고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일명 압록강 대교)를 거쳐 단둥에 도착한 북한 화물차량이 수출입검역검사국의 통관을 받는 단둥해관 주변에선 북한 차량을 보기 힘들었다.

평소 북한 무역트럭들이 해관 통관을 받고 단둥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줄을 서던 골목길도 지나는 차량이 거의 없었다. 신의주에서 출발해 중조우의교를 건너온 북한 ‘요향산려행사’의 소형버스가 단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리 위에서 20분 가량 정차한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해관 주변 무역회사 업주는 “중국이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2375호가 채택된 직후인 9월 12일 오후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해관 주차장이 텅 비었다.

입금지를 시행한 지난달 중순부터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무역차량이 크게 준 데다 이번 조치(대북제재)로 더욱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북·중 교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무역차량이 반 토막 난 데 이어 교역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는 것이다.

압록강변 공원에서 만난 즈(智) 모(56) 씨는 “조선이 중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연합국(유엔) 제재를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본다”며 “이 때문에 조선반도(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것은 나쁜 이웃을 둔 우리(중국)의 불운”이라고 말했다. 단둥 출입국검사검역국 앞 도로에서 만난 장(張) 모(30대) 씨는 “중국과 조선 간 무역에서 단둥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북제재는 북한의 자업자득”,
“대북 무역상을 일거리 없어져”

70% 이상에 달할 정도로 무역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데 잇단 군사도발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탓에 단둥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지난 3일 핵실험을 했을 때 단둥에서도 진동이 있어 놀란 사람이 많았다”고 우려했다.

중조우의교가 바라보는 압록강변 중련(中聯) 호텔에서 만난 중국인 무역상은 “이번에 조선(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이 금지되면서 대북교역에 종사해온 무역상들의 일거리가 상당수 없어졌다”며 “조선의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위탁 가공을 해온 제조업자들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경남 창원서 세계한상대회... 50개국 3천500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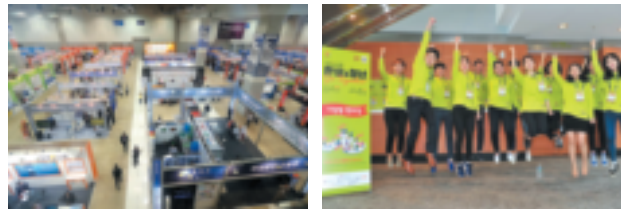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10월 25~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6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50개국에서 3천5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일대일 수출 비즈니스 미팅', '기업 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한상의 밤',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상&청년, Go Together!' 등이 마련된다.

국내외 투자와 사업 진출 등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는 극동지역 투자환경 분석, 4차 산업·금융·학술 세션 등으로 세분화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상&청년, Go Together!'는 대회 기간 면접을 통해 100명의 인턴을 채용한다.



10월 25~27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6차 세계한상대회'에는 50개국에서 3천5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참가한다.

26일 열리는 '한상 리더십 콘퍼런스'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연사로 나서 성공 노하우를 전하고, 27일 폐회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 시대와 한상대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재단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이 자리한 첨단 산업도시 창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2002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상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세계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7 코리안페스티벌' 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으로

재외동포재단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2017 코리안페스티벌'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로 진행했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음악인과 국내 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하며 교류하는 한민족 문화예술 축제로 매년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열고 있다.

올해는 재외동포들이 노래 경연을 통해 내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대회는 미국 하와이, 멕시코·쿠바, 러시아 우수리스크 등 재외동포 이민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10개국을 돌며 예선을 치렀고 18개 팀이 본선에 올라 갈고닥은 솜씨를 선보였다.

송해·장윤정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고 가수 설운도·박상철·김용임과 국악인 김나니의 축하 무대도 열렸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2017 코리안 페스티벌'은 올해 KBS 노래자랑으로 진행돼 10개국에서 1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솜씨를 뽐냈다.

본선 진출자들은 노래와 춤으로 넘치는 끼를 발산했고, 공연을 통해 재외동포의 삶을 들여다보는 등 현장에 모인 관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재단 관계자는 "낮선 땅으로 이주해 살며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던 우리 노래를 가슴으로 부르는 감동의 무대였다"며 "노래를 통해 내외동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를 가깝게 느끼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본선 무대 영상은 10월 8일 추석특집 방송으로 소개됐다. [▶](#)



바른 말 고운 말

당나귀/나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요 가운데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하고 부르던 노래도 있습니다. 이 동화와 동요에 각각 나오는 '당나귀' 와 '나귀' 는 무슨 차이가 있는 말일까요?

'당나귀' 는 말과에 속한 짐승인데 아프리카 야생종을 가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과 비슷하지만 좀 작고, 앞머리에 긴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귀'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귀가 길고 그 모양이 독특합니다. '당나귀' 는 체질이 강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참고 견디기를 잘해, 부리기에 알맞은 가축이지요. 우리나라에는 당나라를 거쳐 들어왔는데 '당나귀' 라는 이름은 바로 당(唐)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나귀' 를 줄여서 그냥 '나귀' 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당나귀' 와 '나귀' 는 같은 동물입니다.

벌초/금초/사초

우리 속담에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와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하는 등 마는 중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벌초(伐草)' 라는 말은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식 때나 추석 때 또는 기일에 맞춰서 성묘하러 가곤 하는데, 성묘 가기 전에 벌초하게 됩니다. 이 '벌초' 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금초' 와 '사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초(禁草)' 라는 말은 '금화벌초(禁火伐草)' 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즉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초(莎草)' 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때를 입혀서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산소의 풀을 깎는 일을 '벌초' 라고 하고, 그리고 한식 때 하는 벌초를 '금초' 라고 할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덤에 불조심한다는 뜻은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8월호 정답

미	아	황	무	지	지	명	
기	행			평	화	사	
손	자	비	행	선		박	수
	기	행	문		날	씨	
		랑			고		
	사	채			이	기	심
연	필	갈	고	리		봉	지
	귀	비				박	사
우	정	탕	수	육			

▶ 오른쪽 방향 열쇠

-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
- 42.195km를 달리는 운동경기.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유명하죠
- 축구나 야구, 농구 등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를 부르는 말
- 기운이 빙점 아래로 떨어질 때, 대기 중의 수증기가 그대로 얼어 지표면 또는 그 가까운 물체들에 하얗게 엉겨 붙은 가루 모양의 얼음
- 물건을 넣어 등에 질 수 있도록 천이나 가죽으로 주머니처럼 만든 것
- 불교에서 이르는 싸움을 일삼는 나쁜 귀신
- 구리나 구리의 합금으로 만든 주화를 두루 이르는 말
- 기계 따위가 제힘으로 움직임. 반대말은 수동
- 꿇구멍 안쪽에 있는, 갓 모양의 둥글고 얇은 막. 공기의 진동에 따라 이 막이 울려 소리를 전해 듣게 한다
- 대한민국의 수도
- 신의를 저버림
- 장기에서 상대방의 '장(將)'을 잡으려고 두는 수
- 회사의 대표자
- 혀나 이, 입술 등을 이용해 말을 이루는 소리를 내는 것 또는 그 소리. '영어○○이 또렷하다'
- 자기에게 쓰라림을 겪게 한 대상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함을 하는 일. '지난 번의 패배를 ○○하다'
- 친근감이나 축하, 환영 등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서로 손을 내밀어 마주 잡음

30. 소의 젖

31.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적 가치
32. 어떤 인물이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돌에 글자를 새겨서 세워 놓은 것

▶ 아래쪽 방향 열쇠

1. 팀마다 1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로 월드컵대회가 유명하다.
3. 종이로 만든 배
4. 예수님의 엄마
6.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본뜬 놀이의 한 가지
9. 남의 집 '처녀'를 점잖게 이르던 말
11. 공격의 반대말
12. 나이가 같은 또래
14. 형제의 아내끼리나 자매의 남편끼리 관계, 또는 그런 관계의 사람끼리 서로를 일컫는 말
16. 강도의 막다른 곳
19. 발에 신고 걷는 데 쓰이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1. 군인들이 입는 옷
23. 오륜(五倫)의 하나.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가 있음을 이르는 말
25.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지휘자, 성악가 등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27. 밀가루를 반죽해 끓는 장국 따위에 조금씩 떼어 넣어 익힌 음식
28. 물에서 하는 운동의 한 가지.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등이 있다

한민족의 정서에 꼭 맞는 친숙한 음식 ‘비빔밥’

대표주자는 양반고을 ‘전주비빔밥’ … 조선의 3대 음식으로 꼽혀



1

1. 오색오미(五色五味)의 전통음식인 비빔밥. 그 대표주자는 양반 고을 전주의 비빔밥이다.

2.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비빔밥, 재료들이 각기 개성을 유지한 가운데 서로 멋스럽게 어우러진다.



2

비빔밥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에 매우 친숙한 음식이었다. 신분 고하를 떠나 실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밥상, 그만큼 한민족의 정서에 꼭 맞는 일상의 먹거리였다. 비빔밥의 대표주자는 양반 고을이자 미식 1번지인 전주의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전주의 상징적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비빔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 밥, 고기, 나물 등을 상에 놓고 제사 지낸 뒤 후손들이 그 음식을 고루 비벼 나눠 먹었다는 제사음복설, 농번기에 구색 갖춘 상차림이 어려워 여러 음식을 한데

섞어 먹었다는 농번기음식설, 조선조의 임금이 점심으로 가볍게 먹는 비빔에서 유래했다는 궁중음식설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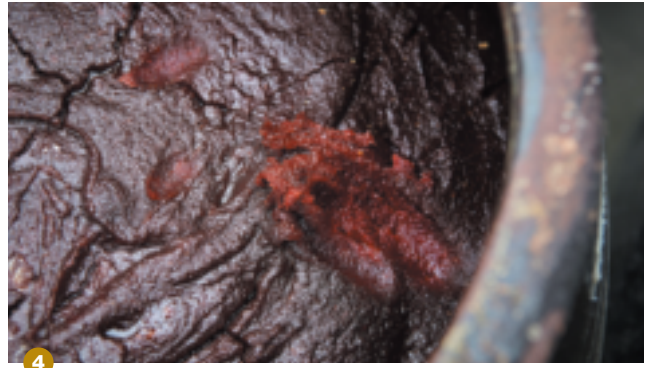
전주비빔밥은 궁중음식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궁중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민음식으로 퍼졌다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조선조 때 ‘감영(監營) 내의 관찰사, 농악패의 판관 등이 입맛으로 즐겼고 성(城) 내외의 양가에서는 큰 잔치 때나 손님을 모실 때 외에는 입사치로 다루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으로 봐 비빔밥은 고관들이 식도락으로 즐긴 귀한 음식이었다. 전주비빔밥은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의 3대 음식으로

꼽혔다.

현재 전주에는 한국집, 성미당, 고궁, 중앙회관, 한국관, 가족회관 등 내로라하는 비빔밥 전문식당이 성업 중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한국집으로 1952년 문을 열었다. 궁중음식설에 걸맞게 전주 비빔밥은 풍부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멋과 맛을 한껏 드러낸다. 부드러운 곡선미의 황금색 유기그릇, 모난 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원만한 닳그릇 안의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황포묵, 콩나물, 썩갓, 시금치, 표고버섯, 참깨... 각양각색의 식재료들이 그릇 안에 모여 서로 손잡고 강강술래라도 추는



3



4

듯하다. 정중앙에 보란 듯이 올려진, 붉은색의 육회, 그 위에는 노란 은행과 연노랑의 잣이 세 개씩 앙증맞다 싶을 만큼 귀엽고 깜찍하게 놓였다. 아래로는 밥과 콩나물이 숨은 듯 깔려 있다.

이들 재료 외에도 고사리, 오이, 호박, 도라지 등에도 대추, 밤, 지단 등의 고명까지 모두 30여 가지가 합세한다. 이 가운데 콩나물과 황포목, 고추장, 소고기 육회, 간장은 전주비빔밥만의 풍미를 살려주는 주역으로 꼽힌다. 전주비빔밥은 뜨겁게 데워진 유기그릇에 담겨 밥상에 올려진다. 손님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먹도록 하기 위해서다. 볶은 소고기가 들어가는 전통 비빔밥이

일반적인데 돌솥에 뜨거운 비빔밥이 담긴 돌솥 비빔밥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식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반찬은 상추 겉절이, 콩자반, 김치, 야채샐러드, 야채전 등 예닐곱 가지가 밥상에 놓인다. 비빔밥 옆에 시종처럼 다소곳이 놓인 콩나물국은 시원한 식감을 더하는 청량제 구실을 한다.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요리사의 솜씨에 못지않게 먹는 이의 정성도 중요하다. 젓가락으로 저어야 밥이 잘 섞이는 것으로 일부 알려졌지만, 숟가락을 이용해 정성껏 비벼주는 게 깊은 맛을 즐기기에 더 좋다고 한다. **장**

- 3. 가스 불에 데워지고 있는 낫쇠그릇의 전통 비빔밥.
- 4. 야외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 재료 본연의 깊은 맛과 색이 느껴진다.
- 5~6. 가장 오래된 전주비빔밥 전문식당 '한국집' (전주시 전동)의 외부 모습과 실내 상차림.

전주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경기전 → 전통성당 → 한옥마을 걷기 → 한국집에서 전주비빔밥 → 추남에서 쥬러스 → 남천교 → 전주향교 → 외할머니 솜씨에서 팥빙수 → 목대&이목대 → 한벽당&자만마을 벽화 → 교동떡갈비에서 떡갈비를 → 카페 투모로우에서 한옥마을 야경 감상

관광안내 전주역 관광안내소

(063-241-6949)

터미널 관광안내소

(063-255-6949)

대중교통 고속버스: 서울 - 전주

(소요시간 2시간 40분)

KTX 열차: 서울역 - 전주역

(소요시간 1시간 49분)

식당정보 한국집 (063-284-2224)

가족회관 (063-284-2884)



5



6

전주 한옥마을

을사늍약(1905년) 이후 대거 전주에 들어오게 된 일본인들이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 밖, 지금의 다가동 근처의 전주천변이었다.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은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였다. 1930년대에 형성된 교동, 풍남동의 한옥군은 일본식과 대조되고 화산동의 양풍(洋風) 선교사촌과 학교, 교회당 등과 어울려 기묘한 도시 색을 연출하게 되었다. 오목대에서 바라보면 팔작지붕의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즐비한 명물이 바로 교동, 풍남동의 한옥마을인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바이애슬론 Biath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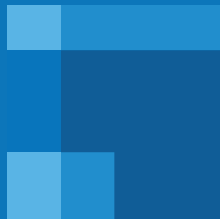
봅슬레이 Bobsleigh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 Freestyle Skiing



노르딕 복합 Nordic Comb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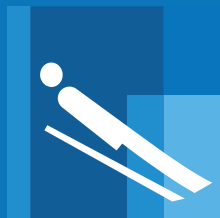
스키점프 Ski Jumping



스노보드 Snowboard



루지 Luge



스켈레톤 Skeleton



컬링 Curling



피겨 스케이팅 Figure Skating



아이스 하키 Ice Hockey



쇼트트랙 Short Track Speed 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 Speed Skating

입장권 선착순 판매 www.PyeongChang2018.com

※ 1인당 총 주문 한도는 50매이며, 1개 경기 주문한도는 인기 경기(4매)*, 그외 경기(8매)

*인기경기 : 개최식, 폐회식, 피겨스케이팅(전 경기), 쇼트트랙(전 경기), 스키점프(결승),
아이스하키(남자-4강부터 결승까지, 여자-결승), 스피드 스케이팅(10000 m 제외한 전 경기)



입장권 QR코드

원클릭 서비스(입장+교통+숙박) 안내 www.pyeongchang.kaltour.com

고객센터 : 1544-4226



www.hansang.net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The better Hansang,
For better Korea



HANSANG

제16차 세계한상대회

THE 16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7. 10. 25(수) ~ 27(금) | 창원컨벤션센터



주최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협력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